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Inequality of the Household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by Income Classes*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정복지학과
조교수 이 성 림

Departmen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Assistant Professor : Lee, Seongl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 | V. 요약 및 결론 |
| III. 분석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using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of 1990, 1996, 1998, and 2000. The major results are: first, inequ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relived between 1990 and 2000; second, despite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right after the Korean economic crisis,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in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gaps in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between income groups are main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pending levels of the private education rather than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s of households who spend any in the private education; fourth, in 2000, the gini coefficient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ha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0.4832, and 0.6468 among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ifth, 30% of the households hav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how the highest level of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ccupy 80% of the total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made by the whole households.

주제어(Key Words): 사교육비지출(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inequality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비지출의 Decomposition (decomposition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문제는 어제, 오늘의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과열과외는 뿌리깊은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1960년대부터 과열과외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시작되었고 1969년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천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입시가 과열되어 중학생 과외가 성행하자 1974년에는 고등학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대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과열과외가 사회문제화 되자 1980년에는 급기야 과외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하기에 이르렀다(양승실, 2001).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점차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과외수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대학생 과외가 허용되고 이어서 1991년에 초·중·고생 학기중 학원 수강이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과외수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으로써 과외규제는 중지부를 찍었다(표 1).

과외수업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시금 과열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극심한 사교육수

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것은 공교육이 교육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는 학생을 둔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과외비 등 사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접하는 교육의 기회와 질이 차이 나게 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이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졌다(정영숙, 1997; 김인숙·여정성, 1996; 김시월·박배진, 1999; 박기백, 1998; 박배진, 1997; 이승신, 2001; 박미희·여정성, 200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계의 사교육지출 실태와 사교육지출에 영향을 주는 가계 특성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이며 자녀수가 적은 가계에서 한 자녀에 대해 사교육비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서 지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사교육비지출과 소득간의 강력한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계층에 따라서 사교육비지출이 어느 정도 차이나고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지출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외규제가 해제된 1990년 이후 소득계층별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의 분포와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와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을 10분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분포를 통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지출 격차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변화추이는 1990년을 시작으로 경제위기를 맞기 이전 가계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이루고 사교육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사교육이 확대되었던 시기인 1996년, 1997년의 경제위기가 가계지출에 반영되어 나타난 1998년, 그리고 이후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 되고 과외금지 위헌이 판결된 2000년을 기준으로 각 기간 동안의 변동

〈표 1〉 사교육학습에 대한 주요 교육정책 변화

시기	내 용
1980	과외금지
1981	학습지 등 유사 과외교습 규제
1981	예체능, 취미 분야 등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1982	어학, 고시학원 재수생 수당 허용
1983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수업 허용
1984	고3 겨울방학 중 외국어 학원 수강 허용
1985	학교 보충수업 부활
1989	대학생 과외 허용, 초·중·고생 방학중 학원 수강 허용
1991	초·중·고생 학기중 학원 수강 허용
1996	대학원생 과외허용
1998	보충수업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 발표
2000	과외금지 위헌 결정
2001	개인교습 신고제

분석하였다. 둘째, Decomposition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계층사이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사교육을 받는 가계의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사교육비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사교육비지출 수준을 10분위로 계층화하여 사교육비지출의 집중도(불평등)를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3절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기술하며 4절에 분석결과, 5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사교육비문제를 진단하며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II. 선행연구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힌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매우 중요한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 514명의 사교육비지출 실태를 조사한 정영숙(1997)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게 나타났다. 김인숙·여정성(1996)은 서울에 거주한 초등학교 2, 4학년생 학부모 761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993년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문숙재·김준미·김성희(1996),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이 고등학생 이하인 자녀를 가진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분석한 이승신(2001),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생 602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조사자료를 분석한 유형선·윤정혜(1999), 19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외비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미희·여정성(2000)에서도 소득이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숙재외(1996)에서 교육비지출은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승신(2001)에서는 자녀가 취학전, 초등학생인 경우보다는 중고등학생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박미희·여정성(2000)에서는 한 자녀 가계보다는 두 자녀 가계에서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고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집단의 사교육비지출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집단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1993, 1995, 1996 대우가구패널에 나타난 사교육비지출은 분석한 박기백(1998)에서도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지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이 665천원, 초등학생 910천원, 중학교 771천원, 일반계고등학교 977천원으로 나타나 일반계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평균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높다(김홍주·한용경·김현철, 1999).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득과 자녀수 및 연령 이외에 사교육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거주지역이 나타나고 있다(정영숙, 1997; 김인숙·여정성, 1996; 김시월·박배진, 1999; 박기백, 1998; 박배진, 1997; 이승신, 2001; 박미희·여정성, 2000).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사교육비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가계내 자녀수와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와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자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1명당 사교육비지출을 분석하였고 학교급에 따라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차이 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분석방법

1. 자료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이다. 도시가계조사는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품목명과 금액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가계부 기입은 연중 내내 이루어지므로 기억에 의존한 지출조사나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의 교육비 지출 조사 자료보다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먼저 이들 학생이 있는 가계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품목별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계에 초등학교 자녀도 있고 중고등학생 자녀도 있다면 조사결과 나타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자녀에 얼마만큼 지출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계를 초등학교 가계와 중고등학생 가계의 두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초등학교가계는 가계에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재수생포함)에 다니

는 자녀는 없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가계로 하였고 중·고등학생(재수생포함) 가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없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있는 가계로 하였다. 따라서 한 가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혼재하는 가계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표본 구성 방식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배타적인 사교육비 지출 자료를 산출하고 자녀의 학교급이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상급 또는 하급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수불가결한 자료는 가계소득 자료인데 어렵게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는 근로자가가에 대해서만 소득자료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가계로 표본이 한정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연도별 표본 수와 표본의 특성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사교육비는 도시가계에서 조사한 교육비 소비지출항목 가운데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예체능계학원, 태권도학원, 기타체육계학원, 사무·전산학원, 기타보충교육에 대한 지출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은 가

<표 2> 표본의 특성

(원은 2000년 가격)

구 분	초등학생가계				중·고등학생가계				
	1990년	1996년	1998년	2000년	1990년	1996년	1998년	2000년	
표본수	976	811	567	950	728	823	699	1055	
가구주연령	평균	37.9	39.5	38.0	38.3	40.5	43.8	45.4	45.4
	(SD)	(5.4)	(6.6)	(3.7)	(3.6)	(12.2)	(1.0)	(5.1)	(4.4)
학생수	평균	1.9	1.7	1.6	1.6	1.5	1.5	1.5	1.4
	(SD)	(0.7)	(0.6)	(0.5)	(0.5)	(0.6)	(0.6)	(0.6)	(0.5)
가계소득(원)	평균	1536224	2367987	2192675	2436317	1557496	2432657	2368857	2723638
	(SD)	(766456)	(1101618)	(1838007)	(1661278)	(880055)	(1259624)	(1506865)	(3102584)
과외가계비율	빈도	730	681	461	815	451	527	540	746
	(%)	74.8	84.0	81.3	85.8	62.0	64.0	77.3	70.7
과외비평균- 전체(원)	평균	29537	71581	57834	81869	23815	40789	57284	72157
	(SD)	(34474)	(71549)	(61066)	(68113)	(44311)	(76315)	(82818)	(109230)
과외비평균- 과외가계(원)	평균	39491	85246	71132	95431	38441	63698	74152	102046
	(SD)	(34582)	(70223)	(60336)	(64134)	(51074)	(87402)	(87344)	(117583)

제내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계의 총 사교육비 지출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사교육비지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소득수준은 1년 동안 조사한 월간 수준을 평균한 연간 월평균 금액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먼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분포, 그리고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였다. 10분위 계층으로 구분한 것은 비교적 세밀한 지출 분포를 알 수 있어서 대다수의 소득 분배연구에서 10분위 구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10분위로 구분할 경우 극상층과 극하층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 중, 하의 세 계층으로 보다 용이하게 나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상, 중, 하의 소득계층 구분은 하위 1, 2, 3분위를 하층, 중간의 4분위부터 7분위까지를 중층, 그리고 8, 9, 10분위를 상층으로 하였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장 작은 값부터 시작하여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집단의 크기가 같도록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소득 1분위 집단은 소득이 가장 낮고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다. 소득10분위별 사교육비 지출은 각 소득 분위에 속한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을 평균한 값이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10분위별 사교육비지출 몫을 산출하였다. 사교육비지출 몫은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모두 합한 사회 전체의 사교육비지출 총액에 대한 각 분위의 사교육비지출 총액(각 분위에 속한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을 합한 것)의 비율이며 이를 통해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지출의 집중도(불평등)도 파악할 수 있다.

두번째로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사교육을 할 경우 지출하는 사교육비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하기 위하여 Decomposi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Decomposition은 어떤 현상에 대

한 집단간의 차이나 두 시점 사이의 총 변화를 그 구성부분으로 분해하는데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Sweet, 1984; Montalto, 1996). 상·중·하의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는 각 집단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편 사교육수업을 할 경우라도 고소득층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데서 격차가 비롯된다.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은 개인사교육, 학원, 학습지에 골고루 지출하거나 개인사교육에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저소득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위 비용이 낮은 보충학습이나 학습지에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박미희·여정성, 2000). 또한 개인사교육 집단이 학원사교육집단보다 평균소득이 높고 소득 분포를 보면 고소득 집단의 비율이 높다(오영수, 1999). 따라서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계층별 사교육-전체 가계중 사교육을 받는 가계의 비율(이하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R)과 사교육을 할 경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L)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T_{op} = L + R$, 여기서 T_{op} 는 소득계층 o와 소득계층 p 사이의 총격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은 사교육율이 소득계층별로 차이 없이 R_p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하여 추출해 낸다: $L = (L_o \times R_p) - (L_p \times R_p)$, 여기서 L_i 는 i 소득계층의 사교육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i = o$ 또는 p ; R_i 는 i 소득계층의 사교육율.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은 사교육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차이 없이 L_o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하여 추출해 낸다: $R = (L_o \times R_o) - (L_o \times R_p)$.

세 번째 연구목적인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지출의 집중도(불평등)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지출 수준을 10분위로 계층화하여 분위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지출몫 그리고 지니계수를 분석하였다.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지출 수준은 월평균 사교육비지출을 가장 작은 값부터 시작하여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집단의 크기가 같도록 10개의 집단

으로 나누어 각 분위별 가계의 사교육비의 평균 지출수준을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에 지출을 많이 하는 가계와 적게 하는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지출 몫은 사회전체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에 대한 각 사교육비10분위별 지출 총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원래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하나의 수치로 간편하게 나타내는 수치로서 사회전체 구성원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상태를 완전균등이라고 가정하고 완전균등상태에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해야 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각 소득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을 대비시킴으로써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분배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분포

1) 초등학생 가계

소득10분위별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모두 증가하였고 사교육비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월 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에서 약 240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약 40% 증가한데 비해 사교육비지출은 1990년 29천원에서 2000년 82천원으로 무려 177% 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사교육비지출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하층이(증가율 208%) 중층보다(증가율 162%), 그리고 중층이 상층보다(증가율 123%) 더욱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1996년과 1998년사이에는 소득과 사교육비지출 모두 감소하였다. 하층에서 소득과 사교육비지출이 상층에 비해 보다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하층은 소득 17% 감소, 사교육비지출

<표 3> 소득계층별 1인당 사교육비지출 추이-초등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구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소득	1536224	590034	8869512	1029624	1160147	1303008	1453595	1646477	1864912	2234054	3223896
	사교육지출	29537	9059	15451	14214	21026	25002	32288	32331	32649	46908	66544
1996	소득	2367987	888580	1317931	1598315	1802710	2075072	2346941	2615431	2949893	3434190	4669070
	사교육지출	71581	28685	46939	43324	57702	68671	88175	73562	90065	102892	116324
1998	소득	2192675	708022	1113726	1376795	1616591	1808057	2051907	2297761	2605839	3100679	5293503
	사교육지출	57834	19760	35966	35536	54033	56026	61831	62433	66976	71074	115728
2000	소득	2436317	787055	1237317	1489424	1706256	1943432	2223083	2535423	2982509	3577664	5881002
	사교육지출	81869	33775	52002	60947	70997	78324	85856	84981	101924	108683	141201

<표 4> 소득계층별 1인당 사교육비 몫-초등학생 가계-초등학생 가계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100%	3.08	5.25	4.82	7.15	8.41	10.98	10.99	10.99	15.95	22.40
1996	100%	4.05	6.55	6.05	8.05	9.58	12.30	10.26	12.57	14.36	16.23
1998	100%	3.44	6.25	6.18	9.23	9.74	10.75	10.66	11.64	12.35	19.76
2000	100%	4.13	6.35	7.44	8.67	9.57	10.49	10.38	12.45	13.27	17.25

24% 감소; 중층은 소득과 사교육비가 각각 12%, 17% 감소; 상층에서의 감소율은 각각 3%, 19%). 1998년과 2000년 사이를 변화를 보면 하층에서 소득은 완만한 증가를 보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소득 약 10% 증가, 사교육비 지출 약 62% 증가; 중층은 사교육비지출 약 37% 증가; 상층은 사교육비지출 약 42% 증가). 경제위기 이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최고점에 달했던 1996년 수준과 2000년 수준을 비교하면 2000년에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가계소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6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층과 하층의 2000년 소득수준(중층 210만원, 하층 117만원)은 1996년 수준(중층 194만원, 하층 107만원)에 못 미치지만 사교육비지출은 1996년보다 크다(2000년 중층 80천원, 하층 48천원; 1996년 중층 72천원, 하층 39천원). 특히 3분위 계층에서 2000년에 소득은 약 150만원으로 1996년 약 140만원에 비하여 6% 정도 적지만 사교육비지출은 36천원에서 61천원으로 40%이상 증가하였다(4분위는 소득이 53% 감소, 사교육비 지출은 23% 증가). 최상계층인 10분위에서 1996년과 2000년 사이 소득은 약 470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약 26% 증가하였고 사교육비지출은 67천원에서 141천원으로 약 21% 증가하여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3분위와 4분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1990년 이래로 중, 하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을 보다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줄었다. 1990년 상층의 사교육비지출 수준(48천원)은 중층(28천원)의 1.8배, 하층(12천원)의 3.8배였던 것이 2000년에는 상층에서 사교육비로 평균 117천원을 지출하여 중층(80천원)의 1.5배, 하층(48천원)의 2.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지출 비중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90년에는 중·상층(약 2%)이 하층(약 1%)에 비하여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1996년과 1998년에는 중층, 하층, 상층의 순으로 사교육비부담이 크게

나타났으며(중층 3.27%와 3.04%, 하층 3.17%와 2.87%, 상층 2.85%와 2.35%) 2000년에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하였고 하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42%에 달하여 가장 크게 나타났다(중층 3.85%, 상층 2.95%).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상층에서 지출한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49.3%를 차지하여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절반 정도가 상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중층 37.5%, 하층 13.1%). 1996년에 하층에서의 사교육비지출은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16.7%로, 중간층에서는 40.2%로 증가하여 계층별 격차가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하층의 급격한 사교육비지출 감소로 인하여 하층의 분배몫은 15.9%로 감소하고 중층과 상층에서 증가하여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졌으나, 2000년 상층이 약 43%, 중층이 39.1%, 하층이 17.9% 차지하여 1990년에 비하여 격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상층에 집중된 경향이며 특히 10분위의 몫이 17.25%를 차지하여 1분위(4.13%)의 4배 이상, 5분위 몫(9.57%)의 1.8배에 달한다.

2) 중·고등학생 가계

지난 10년 사이에 중고등학생 가계에서 소득은 약 74.9% 증가한데 비해 사교육비지출은 203%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과 1996년 사이에는 소득 계층 1분위와 10분위, 그리고 중층의 증가가 두드러졌다(표 5).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상층과 중층간의 격차에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고(상층은 중층의 2.1배) 중·상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미미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층은 하층의 3.8배에서 3.9배로, 중층은 하층의 1.8배에서 1.9배로 격차가 증가). 경제위기를 사이에 둔 1996년과 1998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10분위 계층에서는 소득이 7.59% 증가하였고 사교육비지출은 4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전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중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이 1996년 34천원에서 1998년 56천원으로 약 68%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

〈표 5〉 소득계층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주아·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구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소득	1557496	485130	744946	926800	1109327	1289381	1488012	1704699	1986428	2387763	3475070
	사교육지출	23815	5807	12532	15141	15834	15330	16551	31228	36229	38868	50877
1996	소득	2432657	821879	1218088	1498999	1764243	2057923	2390111	2745085	3145953	3623202	5085069
	사교육지출	40789	16361	16819	22563	21455	31526	44521	40471	68882	71720	77484
1998	소득	2368857	741973	1138839	1411412	1698860	1957398	2272459	2560395	2956976	3523407	5471197
	사교육지출	57284	19146	22740	27488	46734	47812	59752	68690	81405	84093	112438
2000	소득	2723638	787455	1174333	1457343	1803213	2120597	2485292	2838035	3299320	3997089	7296720
	사교육지출	72157	27149	35758	38180	46972	62436	70163	96221	82052	102179	160788

〈표 6〉 소득계층별 1인당 사교육비 몫·초등학생 가계·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100%	2.45	5.28	6.38	6.67	6.37	6.97	13.15	15.26	16.37	21.13
1996	100%	4.58	4.06	5.44	5.17	7.61	10.74	9.77	16.62	17.30	18.70
1998	100%	3.37	4.00	4.84	8.23	8.30	10.52	12.09	14.33	14.81	19.51
2000	100%	3.78	4.93	5.32	6.48	8.70	9.68	13.40	11.32	14.23	22.18

고 있다(상층 1996년 72천원에서 1998년 93천원으로 약 27% 증가, 하층 1996년 19천원에서 1998년 23천원으로 약 23% 증가). 이 기간 동안 중층과 상층간의 격차는 좁아졌지만 중·상층과 하층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1998년 현재 상층의 사교육비지출(93천원)은 하층(23천원)의 4배, 중층(56천원)의 1.7배, 중층은 하층의 2.4배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0년 사이에는 이제까지 사교육비지출을 상대적으로 서서히 증가했던 하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에는 하층과 중·상층간의 격차가 199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상층의 사교육비지출은(115천원) 중층(69천원)의 1.7배, 하층(34천원)의 3.5배, 중층은 하층의 2배). 2000년의 소득계층 사이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1990년과 비교하면 상층과 중층간의 격차는 줄었고 중·상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최상층인 10분위에서 사교육비지출이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996년과 1998년에 비하여 10분위와 다른 계층간의 격차가 더

욱 커졌다. 10분위의 사교육비지출은 2000년에 평균 161천원으로 나타나 9분위 102천원의 1.6배, 5분위 62천원의 2.6배, 1분위 27천원의 5.9배에 달한다.

전체소득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표 6) 1996년까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상층에서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상층 1.9%, 중층 1.52%, 하층 1.63%)한데 비해 1998년부터 전체적으로 2% 이상으로 높아졌고 특히 중층에서 사교육비지출 비중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상류층 2.40%, 하류층 2.17%). 2000년에는 하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이 중층 2.94%, 상층 2.42%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과 1996년에 상층이 차지한 사교육비지출 몫은 약 53%로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절반 이상이 상층이 지출한 것이다.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약 33%는 중층에서 지출한 것이며 나머지 약 14%만이 하층에서 지출되었다. 1998년에 중층이 사교육비지출을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중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39%로 증가하였지만 하층은 12%

로 감소하였고 상층은 49%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약 절반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하층의 몫이 소폭으로 증가하여 1990년 수준인 14%대를 회복하였고 중층은 38%, 상층은 48%를 차지하였다.

2.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Decomposition 결과

1) 초등학교 학생 가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의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수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사교육을 할 경우 사교육비 지출 수준상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데 다음은 소득계층별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과 사교육을 하는 가계에서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소득계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도 높다(표 7). 1990년 소득 1분위 계층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는 39.8%에 불과하지만 10분위에서 그 비율이 약 89.7%로 나타났다. 1996년에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이하 사교육율)은 1990년에 낮은 수준을 보였던 하층에서 크게 증가하였다(1996년 59.8%). 1996년과 1998년 사이에는 하층에서 사교육율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98년과 2000년

동안 다시 하층에서 크게 증가하였고(1분위 48.1%, 2분위 18.3%, 3분위 25.9%) 중층에서는 16.5%에서 22.3% 사이의 증가율을, 상층에서는 7.01%에서 8.0% 사이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0년 현재 1분위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은 약 59%, 5분위 92.6%, 10분위 96.8%로 나타나 하층과 중층간의 격차가 중층과 상층간의 격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을 할 경우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소득계층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1990년과 1996년 사이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이하 사교육비)은 상층에서 2.11배, 중층에서 2.38배, 하층에서 2.39배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던 1998년에 상층은 1996년 수준의 80%, 중층과 하층은 84% 수준이다. 2000년 수준과 1998년 수준을 비교하면 상층의 2000년 수준은 1998년 수준의 1.38배, 중층은 1.30배, 하층은 1.47배로 나타나 하층에서 사교육비를 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1990년 상층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에서 사교육비는(56천원) 하층(23천원)의 2.5배, 중층(35천원)의 1.6배로 나타났고 1996년에는 상층(114천원)과 하층(54천원)간 격차가 2.1배, 상층과 중층(82천원)의 격차는 1.39배, 1998년에는 각각 2.0배와 1.35배로 나타나 계층별 사교육비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하층에서 사교육비

<표 7>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비율-초등학교 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74.8	39.80	69.39	61.86	71.43	79.38	78.57	89.80	84.54	83.67	89.69
1996	84.0	59.76	75.31	82.72	83.95	85.19	92.59	88.89	91.36	91.36	88.89
1998	81.3	54.39	73.68	70.18	85.71	85.96	82.46	89.29	85.96	89.47	96.43
2000	85.8	58.95	82.11	77.89	87.37	92.63	91.58	88.42	90.53	91.58	96.84

<표 8>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초등학교 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39491	22765	22268	23141	29437	31496	41095	36006	38612	56061	74192
1996	85246	48004	62329	52377	68733	80614	95229	82758	98584	112626	130865
1998	71132	36334	48811	50640	63039	65174	74987	69926	77911	79436	120015
2000	95431	57297	63336	78243	81261	84554	93751	96110	112591	118677	145806

〈표 9〉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의 분해-초등학생 가계

구 분	1990			1996		
	격 차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격 차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중-하층(원) (%)	14733 (100)	6827 (46.34)	7906 (53.66)	32420 (100)	20004 (61.70)	12416 (38.30)
상-중층(원) (%)	21024 (100)	17535 (83.4)	3490 (16.6)	31064 (100)	27785 (89.44)	3280 (10.56)
상-하층(원) (%)	35757 (100)	19352 (54.12)	16405 (45.88)	63484 (100)	42998 (67.73)	20486 (32.27)
10분위-1분위(원) (%)	57482 (100)	20468 (35.61)	37014 (64.39)	87639 (100)	49518 (56.50)	38121 (43.50)
구 분	1998			2000		
	격 차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격 차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중-하층(원) (%)	28164 (100)	14678 (52.12)	13486 (47.88)	31133 (100)	15997 (51.38)	15136 (48.62)
상-중층(원) (%)	25828 (100)	21402 (82.86)	4426 (17.14)	37227 (100)	33469 (89.90)	3758 (10.10)
상-하층(원) (%)	53991 (100)	31153 (57.70)	22838 (42.30)	68360 (100)	43136 (63.10)	25224 (36.90)
10분위-1분위(원) (%)	95968 (100)	45514 (47.43)	50454 (52.57)	107422 (100)	52176 (48.57)	55246 (51.43)

를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결과 소득계층간 차이가 다소 줄었다. 2000년 상층의 사교육비(126천원)는 하층의 1.9배(65천원), 중층(89천원)의 1.4배로 나타났다.

Decomposition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격차를 사교육율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Decomposition 결과, 중층과 상층간에는 사교육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가 전체 격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현재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는 약 90%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1990년에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53.7%) 이후 시기부터는 사교육율보다는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가 보다 크다. 2000년 현재 중층과 하층간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는 사교육비에 따른 부분이 전체

격차의 약 51%, 사교육율에 따른 부분은 약 49% 차지한다. 상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1990년과 1998년 그리고 1996년과 2000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과 1998년에는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전체 격차의 약 54%(1990년)와 58%(1998년)를 차지하고 사교육율 차이에 기인한 부분은 1990년 약 46%, 1998년 약 42%를 차지하여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보다 크지만 사교육율 차이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교육비지출이 확대된 시기인 1996년과 2000년에는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가 상층과 하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약 68%(1996년), 63%(2000년)를 차지하고 사교육율 차이에 따른 격차는 각각 32%와 37%를 차지하여 사교육율 차이보다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최상층 10분위와 최하층 1분위 간의 격차를 분해하면 2000년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가 전체격차의 약 51%를 차지하여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와 비

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2) 중·고등학생 가계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분위와 2분위에서 사교육율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1998년까지 사교육율이 증가하여 1990년에는 대체로 7분위부터 평균수준(62%)보다 높았는데 비해 1996년에는 6분위부터 평균(64%) 이상의 사교육율을 보이고 있고 1998년에는 더욱 낮아져서 4분위부터 사교육율이 평균 수준 이상이다. 2000년에는 전반적으로 사교육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6분위 이하의 중·하층에서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차이는 〈표 11〉에 정리되었다. 1990년 상층의 사교육비(54천원)는 하층(25천원)의 2.2배, 중층(39천원)의 약 1.8배이며 중층은 하층의 1.2배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사이의 사교육비 격차는 1998년까지 증가하여 1998년 상층(112천원)은 하층(35천원)의 3.9배, 중층(68천원)은 하층의 1.9배에 달하였다. 2000년에 하층이 사교육비를 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결과 그 격차가 다소 감소하여 상층의 사교육비는(144천원)은 하층(59천원)의 2.4배, 중층(92천원)은 하층의 1.6배이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최상위 10분위에

서 사교육비가 무려 220%나 증가하여 1분위에서의 증가율에 뒤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 바로 아래 소득계층인 9분위와 비교하면 1990년 10분위에서의 수준은 9분위 수준의 1.34배에서(64천원 vs. 48천원) 2000년 1.63배(206천원 vs. 126천원)로 격차가 보다 커졌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사교육율의 차이와 사교육비의 차이로 Decomposition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중층과 상층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의 격차는 1990년에 22,196원, 2000년 45,969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중층과 상층간의 격차는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 2000년에는 사교육비에 기인한 부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1990년에 전체 격차의 약 68%가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며 2000년에는 보다 증가하여 약 81%를 차지한다. 상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1990년 30,789원, 2000년에 81,275원으로 나타났다. 1996년까지는 사교육율에 따른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높았고(51%) 1998년부터 그 비중이 28%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42.1%로 증가하였지만 사교육비에 따른 차이가 57.9%로 보다 크다. 중층과 하층간의 격차는 1996년까지는 주로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으나(70.6%)

〈표 10〉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비율-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62.0	34.25	39.73	58.90	67.12	52.78	58.90	76.71	71.23	80.82	79.17
1996	64.0	44.68	48.15	55.56	58.02	60.49	72.84	67.90	80.25	77.78	77.78
1998	77.3	54.29	65.71	75.71	77.14	84.29	87.14	81.43	84.29	78.57	84.06
2000	70.7	48.11	59.05	62.26	70.48	72.64	70.48	83.02	81.90	81.13	78.13

〈표 1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계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51074	16957	31546	25705	23589	29046	28099	40708	50860	48091	64265
1996	87402	36618	34933	40614	36976	52115	61122	59602	85838	92211	99622
1998	87344	35269	34606	36305	60581	56880	68568	84356	96582	107028	133762
2000	17583	56428	60558	61320	66649	85952	99556	115903	100180	125942	205887

〈표 12〉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의 분해-중고등학생 가계

구 분	1990			1996		
	격 차	사교육비 수준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격 차	사교육비 수준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중-하층(원) (%)	8592 (100)	2526 (29.40)	6066 (76.60)	15532 (100)	6833 (29.40)	8699 (70.60)
상-중층(원) (%)	22196 (100)	15043 (67.77)	7153 (32.23)	37633 (100)	25760 (68.45)	11873 (31.55)
상-하층(원) (%)	30789 (100)	12950 (42.06)	17839 (57.94)	53165 (100)	26042 (48.98)	27123 (51.02)
10분위-1분위(원) (%)	45071 (100)	16203 (35.95)	28868 (64.05)	61125 (100)	28150 (46.05)	32975 (53.95)
구 분	1998			2000		
	격 차	사교육비 수준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격 차	사교육비 수준에 따른 격차	사교육율에 따른 격차
중-하층(원) (%)	31081 (100)	19540 (62.87)	11541 (37.13)	35306 (100)	18840 (53.36)	16466 (46.64)
상-중층(원) (%)	36516 (100)	36739 (100.61)	-223 (-0.61)	45969 (100)	37087 (80.68)	8882 (19.32)
상-하층(원) (%)	67597 (100)	48593 (71.89)	19004 (28.11)	81275 (100)	47077 (57.92)	34198 (42.08)
10분위-1분위 원 (%)	93293 (100)	53472 (57.32)	39821 (42.68)	133712 (100)	71905 (53.78)	61807 (46.22)

1998년부터 사교육비에 따른 차이가 보다 큰 비중을 차지(약 63%)하였고, 2000년에 사교육비에 따른 격차가 전체 격차의 약 53%로 나타나 미미하지만 사교육율에 따른 차이(46.7%)보다 크다.

3.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분포와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

1) 초등학생 가계

〈표 13〉과 〈표 14〉에 가계의 1인당 사교육비지출 수준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지출 수준과 분배몫을 정리하였다. 최하위 1분위는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계로 구성되어서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0으로 나타났고 2분위에서도 상당수의 가계가 사교육비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지출 수준이 매우 낮다. 1990년에 사교육비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10분위의 사교육비지출은 106천원으로 나타나 5분위

16천원의 약 6.5배에 달했으나 이후부터 그 차이가 감소하여 2000년 현재 10분위의 사교육비지출은 5분위의 3.5배로 나타났다(10분위 227천원, 5분위 65천원). 5분위와 그 하위 분위간의 격차도 2000년에는 1990년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 최상위 3분위가 차지하는 사교육비 지출 분배몫이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71% 였던 것이 1996년에 약 64%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 약간 증가하여 65%를 차지하였으며 이후에 다시 감소하여 2000년 현재 약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1998년에 비하여 12% 포인트나 감소하였지만 상위 세 분위가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최하 3개 분위와 중간 4개 분위의 분배몫이 이전시기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네 개 분위의 사교육비지출은 전체의 약 36%, 최하 세 개 분위는 겨우 5%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도가 매우

〈표 13〉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수준-초등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0	0	952	7994	16322	25035	34323	45401	60086	105767
1996	0	2860	22078	38540	53170	64786	78336	98951	130804	227169
1998	0	359	11057	26247	41130	53996	65607	82836	110977	187964
2000	0	7886	34051	54156	64873	79282	94437	113205	143499	227304

〈표 14〉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 뒤-초등학생 가계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0.00	0.00	0.32	2.72	5.50	8.51	11.67	15.28	20.43	35.59
1996	0.00	0.40	3.08	5.38	7.42	9.04	10.93	13.81	18.25	31.70
1998	0.00	0.06	1.92	4.49	7.15	9.39	11.20	14.40	19.30	32.10
2000	0.00	0.96	4.16	6.62	7.92	9.68	11.54	13.83	17.53	27.76

〈표 15〉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초등학생 가계

연도	사교육비 지출 지니계수	소득 지니계수
1990	0.5878	0.2586
1996	0.4920	0.2507
1998	0.5190	0.2974
2000	0.4381	0.3046

크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를 통하여 사교육비지출의 집중도를 살펴보면(표 15) 1990년에 0.5878로 가장 높고 전 계층의 사교육비지출이 확대된 1996년에 0.492로 다소 낮아졌다. 경제위기이후에 0.519로 다시 불평등도가 증가하였고 2000년 현재 0.4381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의 지니계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분배보다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도가 보다 높다.

2) 중·고등학생 가계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까지는 사교육비지출을 하지 않은 가계가 4분위까지 분포하였는데 이후부터는 사교육을 하는 가계가 늘어나 1998년부터 사교육비지출이 없는 가계는 3분위까지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가계로 구성된 10분위의 사교육비지출수준은 1990년 5분위의 37.9배(132천원 vs. 3천원), 1996년에는 33.6배(227천원 vs. 36천원)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과 2000년에는 그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2000년 현재 10분위 사교육비지출은 311,134원으로 5분위 29,001원의 10배 이상이나 된다.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가운데 10분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까지 절반 이상(55.5%)에 달하였고 이후 줄어들어 2000년 현재 약 43%로서 10분위에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절반 가량 집중되어 있다(표 17).

〈표 16〉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 지출 수준-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원-2000년 가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0	0	0	178	3486	9360	16789	28566	48767	132202
1996	0	0	0	1031	6756	14395	25315	46243	88065	227248
1998	0	0	2771	11025	19752	32839	52884	80477	125232	250623
2000	0	0	80	10833	29001	46022	70751	103213	151576	311134

〈표 17〉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 뒤·중·고등학생 가계

(단위: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0	100%	0	0	0	0	1.45	3.94	7.07	12.03	20.53	54.90
1996	100%	0	0	0	0.26	1.65	3.52	6.26	11.30	21.51	55.51
1998	100%	0	0	0.48	1.93	3.45	5.74	9.25	14.07	21.89	43.18
2000	100%	0	0	0.01	1.49	4.04	6.35	9.85	14.24	21.11	42.92

〈표 18〉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중·고등학생 가계

연도	사교육비 지출 지니계수	소득 지니계수
1990	0.7415	0.3431
1996	0.7456	0.3003
1998	0.6496	0.2786
2000	0.6468	0.2978

사교육비지출 상위 30%로부터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엄청난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47로서 이전 어느 시기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 지니계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것이다(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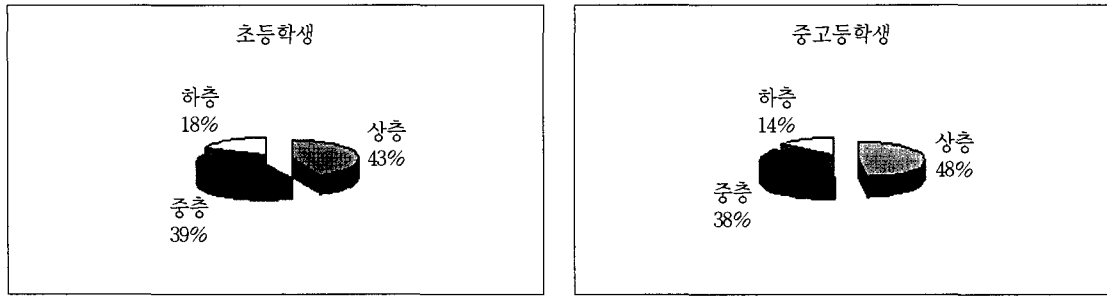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하여 1990년, 1996년, 1998년,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규제가 해제된 1990년 이후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와 사교육비지출 불평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사이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과 사교육비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교육비지출 분포와 지니계수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지출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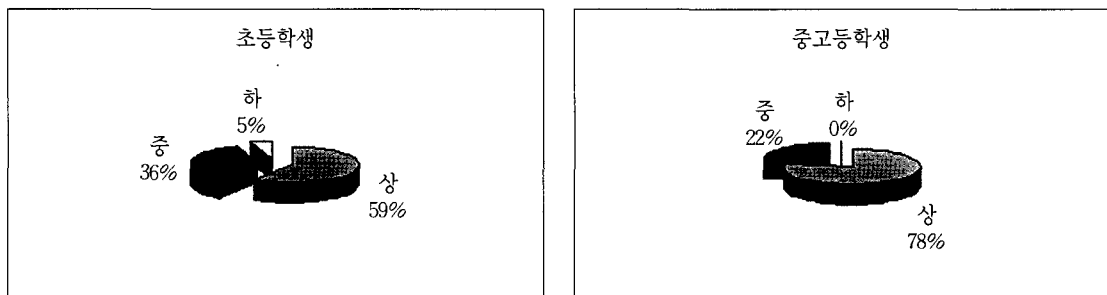
평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분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가계에서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소득은 약 40%, 사교육비지출은 약 117% 증가였고 중·하층이 사교육비지출을 보다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소득계층 상층에서 지출한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약 43%, 중층은 39.1%, 하층은 17.9% 차지하며 여전히 상층에 집중된 경향이다. 중·고등학생 가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소득은 약 74.9%, 사교육비지출은 약 203%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까지 중·상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이 보다 크게 증가한 결과 하층과 그 상위 계층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에 비하여 2000년에 상층과 중층간 격차는 감소하였고 하층에서도 사교육비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하층과 중·상층간의 격차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하층의 사교육비지출이 전체 사교육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며 중층은 38%, 상층은 48%를 차지한다. 1990년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2000년에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교육비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둘째, 하층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다. 1990년 초등학생가계에서 소득 1분위 계층에서 사교육수업을 하는 가계는 39.8%에 불과하지만 10분위에서 그 비율이 약 89.7%였고 2000년 현재 1분위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은 약 59%, 5분위 92.6%, 10분위 96.8%로 나타났다. 2000년 상층의 사교육비는 126천원으로 하층 59천원



〈그림 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몫



〈그림 2〉 사교육비 지출 수준별 사교육비지출 몫

의 1.9배, 중층 65천원의 1.4배이다.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수준 격차는 사교육율보다는 사교육비의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크며 1990년에 비하여 이후의 시기로 올수록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보다 커지고 있다. 2000년 현재 상층과 중층간의 격차가운데 약 90%는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하층과 중·상층간의 격차는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 차이도 상당 부분 차지하여 사교육율의 차이는 중·하층간 격차의 약 절반 가량, 그리고 상·하층간 격차의 약 40% 차지한다.

중고등학생 가계에서 1996년까지는 6분위 이상에서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부터 4분위부터 사교육율이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199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 하층이 사교육비를 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결과 그 격차가 감소하여 상층의 사교육비(144천원)는 하층(59천원)의 2.4배, 중층(92천원)의 1.5배, 그리고

중층은 하층의 1.55배이다. 상층과 중층간의 격차는 주로 사교육비의 차이에 기인한다. 2000년 현재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격차는 상중층간 격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층과 중·상층간의 격차는 1996년까지 주로 사교육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으나 1998년 이후부터 사교육비 차이에 기인한 부분이 보다 크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율의 차이에 기인한 격차도 총 격차의 40%내외를 차지한다.

셋째, 초등학생가계에서 1990년에는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상위 30%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71%로서 극심한 집중도를 보인다. 2000년 현재 이들의 사교육비지출은 전체의 약 59%이며 중간 네 개 분위의 사교육비지출은 전체의 약 36%, 최하 30% 가계에서 약 5%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하여 분포가 보다 균등해졌지만 여전히 상층으로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는 1990년에 0.5878로 가장 높고 2000년 현재 0.4381로 나타났다. 1996년까지 중고등학

생가계가운데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0%의 가계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절반을 넘었다. 이후부터 줄어든 수치가 2000년 현재 약 43%로서 전체 가계의 10%에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000년 현재 사교육비지출 상위 30%로부터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는 0.647로서 엄청난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사교육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1990년에 비하여 이후 사교육규제가 해제되고 10년이 지난 2000년 현재 소득계층간의 사교육비지출 격차는 대체로 감소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가 줄어든 원인은 전체 가계가 사교육비지출을 늘렸지만 중층과 하층, 특히 하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데 있다. 그 결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가계소득에 대한 사교육비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하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보다 제한된 하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의 증가 여력이 먼저 한계에 도달할 것이고 더 이상 이들 계층에서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소득계층간 격차가 다시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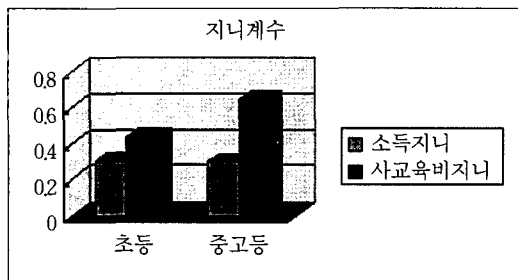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초등학생 가계와 중고등학생 가계간에 사교육비지출상의 중요한 차이가운데 하나는 초등학생 가계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한 1998

년에 사교육비지출을 융통성있게 줄인데 비해 중고등학생 가계에서는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킨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사교육은 선택적이지만 중고등학생 사교육은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공적으로 제공되는 학교교육이 교육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육이 지속된다면 사교육비지출에 따른 교육격차의 발생은 자명한 일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경쟁이 극심해질 것이며 중국에는 보다 극심한 지출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사회 전체가 과열사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하층에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 가계의 비율이 몹시 낮다. 하층과 중·상층간 사교육비지출 격차의 상당부분이 사교육비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방과후 학습이나 특별 예·체능활동을 제공하거나 사교육수업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비지출의 지니계수와 사교육비지출 수준별 사교육비지출 분포는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지출 분포보다 더욱 극심한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증가율을 능가하는 속도로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가계 3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나머지 가계 7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보다 크다는 결과는 사교육비지출이 매우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특히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도는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 사이에 극심하다. 중고등학생 가계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가계 1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가계의 3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지출의 80%를 차지하며 사교육비에 지출을 가장 적게 하는 가계 30%가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0.01%에 그친다는 결과는 극심한 불평등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소득 10분위별과 사교육비지출 10분위별 사교육비지출 수준 분포를 비교하면(〈표 4〉와 〈표 14〉, 〈표 6〉과 〈표 17〉의 비교) 분포상의 차이가 크다. 이는



〈그림 3〉 사교육비지출의 불평등도-지니계수

소득이외의 다른 요인이 사교육비지출에 크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력과 직업, 거주지역이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사교육비지출은 소득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지출 10 분위분포에서 상위 집단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큰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자녀의 사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약 30% 가량의 가계가 우리 사회의 사교육비문제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 가계에서 사교육비지출이 중층에서 하층으로 순차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사교육비지출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지출이 중층과 하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처럼, 중고등학생가계의 사교육비지출의 거의 대부분(80%가)이 단지 전체 가계의 30%로부터 지출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사교육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나머지 가계 70%도 이들의 지출 수준을 열망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열망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교육비지출을 늘렸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압박을 견디어 내야만 하고, 경제적 압박으로 열망하는 지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좌절과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로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였는데 극심한 사교육비지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조사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가계내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혼재한 가계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들 가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존재가 각각의 사교육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직업은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개별 가계의 선호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가구주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사교육비지출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과 중고등학생 가계의 사교육비지출 수준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사이에 자녀에 대한 교육열에 있어서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세대효과도 후속의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김시월, 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79.
- 김인숙, 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7-149.
- 김홍주, 한용경, 김현철(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37(4), 307-328.
- 문숙재, 김순미, 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2), 171-184.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재정논집*, 13(1), 149-163.
-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양승실(2001).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 기능 재정립. <http://www.inc.or.kr/cica/column5.htm>
- 오영수(1992). 한국의 중학교교육 수요에 관한 연구-사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 및 교육수요함수 추정. *재정논집*, 6, 145-183.
-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정영숙(1997).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 97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6-85.